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미래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

서보경,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mail: jcy0902@dhc.ac.kr

The Effect of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Psychiatric Nursing Care on Future Core Nursing Competencies in Nursing Students'

Bo-Gyeong Seo, Chu-Young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여 미래핵심간호역량인 비판적 사고성향, 정신간호 역량, 리더십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후 개인사고 역량은 비판적 사고 성향, 직무 역량인 정신간호 역량, 전문직관 역량인 리더십 역량 및 사회정서적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은 정신간호실무 영역에서의 미래핵심간호역량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향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1. 서론

간호현장은 많은 전문 인력과 고난도,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 상 정확하고 섬세함이 요구된다. 이에 간호사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 및 활용능력, 의료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은 환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감염관리 문제 등으로 실제적 학습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은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습기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학습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2]. 한편 고충실도의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정신간호에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편 Kim 등[3]은 간호교육평가원과 국외 보건의료전문단체가 제시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사고 역량, 직무 역량, 전문직관 역량, 사회정서 역량으로 구분하여 미래핵심간호역량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간호역량의 하위요인인 개인사고 역량(비판적 사고성향) 직무 역량(정신간호 역량), 전문직관 역량(리더십 역량), 사회정서 역

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미래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설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였고 사전조사, 실험중재,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3학년 2학기 정신간호학실습 I 을 임상실습으로 이수한 자로 4학년 1학기 시뮬레이션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실험군은 교내에서 시나리오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물레이션 교육을 6회기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표본 수는 G*Power 3.1.2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 .30,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으로 산출결과 90명 이었다. 탈락률 20% 고려하여 108명에게 자료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14부를 제외하고 최종 96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윤 진[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2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3.2 정신간호 역량

정신간호역량은 Rutledge 등[5]이 개발한 Behavioral Health Care Competency(BHCC)를 한정원과 우희영[6]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정원과 우희영[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3 리더십역량

셀프리더십은 Manz[7]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를 Kim[8]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8문항으로 '자기 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 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사회정서역량

사회정서역량은 Merrell, Juskelis, Tran and Buchanan [9]이 개발한 SEARS(Social and Emotional Assets and Resilience Scale)를 권영웅[1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52문항으로 사회적 유능감 22문항, 정서조절 12문항, 공감 6문항, 자아존중감 12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영웅[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시물레이션 교육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24.30세였다. 성별은 '여학생' 이 76.%이었다. 학업성취도(평균 평점)는 '3.5점~4.0점' 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37.5%이었다.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는 '중' , 사회적 지지 정도는 '상' 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으며, 시물레이션실습 자신감은 '보통' 54.3%,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 54.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 이 46.9%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4.30±5.59
Gender	Male	23(24.0)
	Female	73(76.0)
Religion	No	81(84.4)
	Yes	15(15.6)
Grade point average	<3.5	32(33.3)
	3.5-4.0	36(37.5)
	>4.0	28(29.2)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7(7.3)
	Moderate	48(50.0)
	Good	41(42.7)
Self rated economic status	Poor	18(18.7)
	Moderate	47(49.0)
	Good	31(32.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oor	8(8.3)
	Moderate	36(37.5)
	Good	52(54.2)
Social support	Poor	5(5.2)
	Moderate	23(24.6)
	Good	68(70.8)
Simulation practice self-confidence	Low	20(20.8)
	Middle	52(54.2)
	High	24(21.0)
Clinical practice stress	Low	9(9.4)
	Middle	45(46.9)
	High	42(43.7)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ifferences in dependent variables

(N=96)

Variables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ce (M±SD)	t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8±0.62	4.05±0.54	-0.47±0.72	4.93(.001)
Social-emotional competence	3.73±0.63	3.96±0.63	-0.24±0.76	3.93(.001)
Leadership	2.93±0.61	3.16±0.47	-0.23±0.56	3.03(.003)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3.75±0.51	4.08±0.54	-0.32±0.64	6.41(.001)

3.2 대상자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실습 참여 전후의 미래핵심간호역량 차이

대상자의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의 핵심역량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실습 전 평균 점수 3.58점, 실습 후 4.0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93$, $p<.001$).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의 사회정서역량은 5점 만점에 실습 전 평균 점수 3.73점, 실습 후 3.9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3$, $p<.001$).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의 리더십 역량은 4점 만점에 실습 전 평균점수 2.93점, 실습 후 3.1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3$, $p=.003$).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의 정신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실습 전 평균점수 3.75점, 실습 후 4.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41$, $p<.001$).

참고문헌

- [1] Kim KJ, Jang BY, Jung JY, Park OW.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HRD issues for nurses: Prospects and challenges.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18;21(3):137-159. <https://doi.org/10.24991/KJHRD.2018.09.21.3.137>
- [2] Happell, B. Gaskin, C. J. "The Attitud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Mental Health Nursing: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2(1), 148-158, 2013.
- [3] Kim MI, Lee TH, Lee HG, Lee GH, Kim HS, Yuk GI. Focusing on fostering future nursing talents leading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Seongnam: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 [cited 2025 Apr 9]. Available from: https://www.koreascientists.kr/scientists/board/data/?boardId=bbs_0000000000000017&mode=view&cntId=16&category=&pageIdx=.
- [4]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aster's thesis). USA: Catholic University, 2004.
- [5] Rutledge, D. N., M. Wickman, D. Drake, E. Winokur and J. Loucks, "Instrument Validation: Hospital Nurse Perceptions of Their Behavioral Health Care Competen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8(12), 2756-2765, 2012.
- [6] 한정원, 우희영, "한국어판 비정신과 간호사의 행동건강 간호역량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426-432, 2016.
- [7] Manz C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115, 1983.
- [8] Kim HS.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02.
- [9] Merrell, K. W., M. P. Juskelis, O. K. Tran and R. Buchana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Evaluation of Strong Kids and Strong Teens on Students' Social-Emotional Knowledge and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24(2), 209-224, 2008.
- [10] 권영웅,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사회정서적 성과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